

행정안전부, 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4월 26일(수)부터 지자체 공모 시작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등이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8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6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7종) 등 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13종의 서비스 중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종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8개 기관에 총 75억 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도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때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

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17개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신호가 부족한 곳에 차량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신호등, 독거노인의 일상을 돕는 인공지능(AI) 반려인형, 인공지능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등을 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전종태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등의 지역 특성상 디지털기술 활용 시 적은 예산으로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효과가 지방과 일상생활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생활 / 안전 화재 및 재난대응 조기경보 고독사, 우울증 치매관리 지능형 CCTV	의료 / 복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시로봇, 스피커, 반려인형 등)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	교통 / 편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APP) 스마트 가로등, 횡단보도, 풀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 문화 스마트 관광서비스 스마트 체육시설 지역특화(역사·문화) 프로그램	인구유입 위케이션-디지털노마드 온라인마을 조성 청년 복합타운 조성	지역경제 활력 스마트 팜, 어업 등 지역 특산물 판매/홍보 플랫폼 스마트 전통시장



가스공사, 천연가스 인프라 중복 투자 방지 나선다!

- 서부발전과 북삼-군위 천연가스 공급설비 공동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스공사, 기관 협업을 예산 절감 및 공급망 안전성 제고... 일거양득 기대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4월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가스공사 환상망 및 서부발전 전용배관시설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의 환상 배관망 건설 사업과 서부발전의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전용배관시설 건설 사업을 연계해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구미시를 거쳐 군위군에 이르는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공동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2025년까지 북삼~구미 구간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먼저 건설하고, 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구미~군위 구간에 대한 천연가스 환상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

획에 따라 '북삼~군위 환상망'을 구축 중인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 21.5km 구간(북삼~구미)에 대한 국가 천연가스 배관망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천연가스 배관 운영 전문성을 갖춘 가스공사가 환상망 통합관리를 맡음으로써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 및 가스공사,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과의 협업을 한층 확대해 경제적인 천연가스 공급과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부담 최소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울진 산불 1년, 경북도 산림대전환 준비 착착 진행중...

울진 일원 국립기관 유치, 소득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산불로 327세대 466명의 주민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1만4천14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불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산림자원의 생산적 복원을 위한 전략 마련과 산림기능의 회복,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 리조트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주민의 소득원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 일자리가 창출되며 나아가 산불피해지역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산림과학 클러스터와 동해안 산림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피해복구와 예방 등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지생태의 생산적 복원으로 산림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립산지생태원, 산불 피해목 및 우량임목을 통한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예산이 지난해 연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낙동정맥 트레일, 금강소나무숲길 등 기존 숲길과 연계되고, 거점마을과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동서 트레일 조성 등 울진에 적합한 밀원수를 식재해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조성하는 밀화원특화숲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초대형헬기(S-64E)의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배치도 마쳤다.

울진지역 임업인들의 조기 피해극복과 소득원 창출을 위해 대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 조성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해 200여 임가에 긴급 지원했으며,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또 지난 14일에는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404MW, 1조원 규모의 공공수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추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주민과 울진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 생태복원, 항구복구 사업 등을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형산불 이후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의 상흔을 딛고 지역주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호텔, 리조트 등 관광 서비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제4회 2023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기간 | 2023. 5. 5.(금) - 7.(일)

장소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및 서천둔치 일원

주최 영주시

주관 영주문화관광재단

후원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기도의회, 실전 안내서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발간

전반적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의안처리 방안 총망라

경기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실전 안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을 총망라해 안내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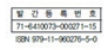
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공동단장 고준호·김희철 의원)' 주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제도와 자료를 정리한 의원 배부용 의정활동 안내책자(비배품)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 공식 SNS 캐릭터 '소원이'를 표지에 담은 책자는 총 98쪽 분량으로, 크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록'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서 의원들은 보수와 복지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역량교육, 공무국회출장, 의무 신고내역,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두루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정의)에 근거해 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 적시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도의원의 직급과 직위, 직책 등 세부경력을 외부에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새롭게 구상해 안내했다.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문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은 ▲회의진행 및 운영 ▲의안처리 ▲회의록 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돼 다뤄졌다.

제11대 의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포함해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법 등 회의 진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됐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회의록의 작성·공개·배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사진행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주요업무 내역과 담당부서, 문의처가 수록됐다.

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

단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내용을 반영해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염종현 의장은 "초선의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정역량 강화는 경기도 발전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책자가 초선의원들의 의정성과를 높이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공동단장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이번 길라잡이 책자뿐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전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희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한 만큼, 많은 도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의회는 전 의원에 책자를 1부씩 배부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실, 31개 지역상당소에 비치해 두루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도의회 초선의원은 총 108명(국민의힘 63, 더민주 45)으로 전체 의원 156명의 69.2%에 달한다.

조혜영/기자

전라북도의회 사각지대 속 종교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과 활용 가능해진다

이명연의원 대표발의한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전라북도의회 이명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 하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했던 도내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

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 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한 이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연 의원은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

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해 활동했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 활동 결과물의 일환으로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됐다.

이남출/기자

평택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개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26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실시

평택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평택역, 평택지역 ▲예술의전당, 박물관 예정 부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16곳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5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사업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억 원(6.68%) 증가한 2조 4,213억 원으로 상정됐다.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정화·이종원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명숙·김순이·최선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강정

구 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혜영 의원이 시 공공하수처리장의 거둬되는 하수도범 위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성을 통해 면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시선은 어제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의 문제, 내일의 희망에 맞춰져 있다"며 "시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의회, 시민 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신동섭 의원의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시행됐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민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 걷기 활성화에 동참한 인천시민에게 지급될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잠정치표(2022년도)를 보면 인천시민의 걷기 실천율(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54.4%,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38.8% 등으로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신체활동 관련 지표 역시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꾸준한 걷기운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시킬 원동력이 없어 이번에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도 시민 12만 명이 가입·운영되고 있는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을 추진할 정도로 시민의 걷기 활성화에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발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걷는 것은 성별·나이·연령·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으로, 더 많은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걷기 관련 행사에서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이 모두



발의의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활성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일간 진행되며, 다음 달 '제287회 인

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태선 (112)	문화부: 태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태선 (113)	부동산부: 태선 (117)
	경제부: 태선 (114)	오피니언부: 태선 (118)
	스포츠부: 태선 (115)	지방부: 태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합니다!

사람중심, 번영중심 의회다운 의회

'우리, 서울농장으로 출근할래요'...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 운영 참가자 모집

서울농장 3개소(영월, 부여, 남해) 대상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 운영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서울농장을 활용한 농촌 힐링 위케이션 본격 운영에 앞서 서울농장 3개소(영월 서울농장, 부여 서울농장, 남해 서울농장) 대상으로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6개 시·군이(경북 상주, 충북 괴산, 전남 영암, 강원 영월, 충남 부여, 경남 남해)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3개소(상주 서울농장, 괴산 서울농장, 영월 서울농장)를 먼저 공동 조성했으며, 2022년 추가로 3개소(영월 서울농장, 부여 서울농장, 남해 서울농장)를 공동 조성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시민의 서울농장 농촌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2022년에는 서

울시민 1,947명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이후로 농촌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2,79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체험 수요 증가와 새로운 근무 형태인 위케이션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을 운영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지역상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본격 운영에 앞서 서울농장 3개소(영월 서울농장, 부여 서울농장, 남해 서울농장)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1차 시범운영은 5월 22일~5월 25일(3박4일)로 영월 서울농장, 부여 서울농장을 운영하고, 2차 시범 운영은 5월 29일~6월 1일(3박4일)로 남해 서울농장을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4월 24일~5월 5일까지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 운영에 참여할 참가자 총 50여 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기업 재직 대상자로, 기업단위, 개인단위, 가족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참가자에게는 3박4일 동안 여행자 보험, 숙소, 조식, 중식,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서울농장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 누리집(구글폼) 주소에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 운영 참가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농장' 및 공식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대외협력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상촌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민들에게는 농촌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 서울농장 농촌힐링 위케이션 시범운영 참가자 모집

2023년 4월 24일(월) ~ 5월 5일(금)

- >>> 모집기간**
접수 : 2023년 4월 24일 ~ 5월 5일 18:00
- >>> 접수방법**
QR코드 활용 구글폼 온라인 제출
- >>> 신청자격**
서울농장 위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기업 재직자
- >>> 선정발표**
2023. 5. 12 (금)
- >>> 모집내용**
서울농장 위케이션 시범 운영 참여자 모집
-부여, 영월 : 2023. 5. 22 ~ 25(3박4일)
-남해 : 2023. 5. 29 ~ 6. 1(3박4일)
- >>> 문의사항**
서울시 대외협력과 ☎ 2133-6660
E-mail: ysl50401@seoul.go.kr

최광수/기자



2023 청산도 슬로시티축제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40만 서초구민 대화합의 장! 서초구민 체육대회 4년만에 열려

서울 서초구는 오는 29일 반포종합운동장에서 40만 서초가족이 함께하는 '2023 서초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서초구 18개동의 선수단, 응원단, 서초구민 10,000여명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체육경기는 △줄다리기 △희망의 고리던지기 △협동 공재우기 △필드 컬링 △비전 탐색우기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쉽고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식종목 외에는 OX퀴즈, POP UP 가위바위보 등 운동을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번외 경기들을 준비했다.

한 편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서리풀 놀이공원, 승부차기 축구 이벤트존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이 곳에서

참가자들은 VR 스포츠 체험존, 미니바이킹, 모터바이크, 꼬마기차, 에어바운스 농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행사장 곳곳에 피에로 풍선놀이, 페이스 페인팅, 커피박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져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날 축하공연으로는 서리풀 청년예술단 오리엔탈르네상스의 음악공연과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 치어리더 응원 등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종목별 경기점수와 응원 등 참여도를 평가해 종합우승, 종목별 우승 등을 시상한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냉장고, 스타일러, TV,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진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서초구민 모두가 모이는 행사로,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과 소통의 큰 잔치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온·가·족·이·함·께·하·는
— 2023 —
서초구민 체육대회
SEOCHO-CU SPORTS FESTIVAL

2023. 4. 29. (토) 10:00
잠소·반포종합운동장

금천구, 부부 힐링캠프 'Re-Re 뽀(부부)캉스' 개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 힐링캠프 행사 개최

금천구는 금천구가족센터에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시 돌아온 부부 힐링캠프, 'Re-Re 뽀캉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Re 뽀캉스'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의미의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금천구민의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결혼 20주년 이상인 부부 15쌍이다.

충남 공주시 소재 한국문화연구소

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의 시간 '술치유 명상',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부부대화법과 소통 강의' 등이 진행된다.

4월 28일까지 금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에서 신청하거나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발표는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5월 8일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금천구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부부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오고 있다.

부부를 위한 '토크콘서트', 추억의 '1010235(열렬히 사모)'라는 주제로 다양한 데이트 코스 제공, '나의 신랑, 나의 신부'라는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 등 참여했던 중·노년기 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 4(목) ~ 5. 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은평구, 구민 중심 은평형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은평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스마트도시'란 일반적으로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한다.

은평구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은평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다양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법정 기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올해 처음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20명으로 위원장인 신중우 부구청장 포함 당연직 위원 9명과 민간위원 포함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대학, 기업체, 학회 등에서 스마트도시·도시계획·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했다.

주요 역할은 ▲스마트도시 계획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재정 확보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등과 관련한 협의·자문을 담당한다.

지난 2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은평구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의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은평구는 안전, 보건, 자원순

환,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며 스마트도시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인공지능 X-ray 영상 판독, 인공지능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 스킨톤 황단보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통령상을 비롯해 지방행정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수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구민 삶의 질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신성장 동력 창출과 활력있는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주택가이면도로까지 구석구석 씻고 닦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3대 도입

24일 용인중앙시장서 이상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4월말부터 3개구 1대씩 배치해 운영하고 확충할 방침

용인특례시가 작은 골목길도 청소하기 위해 도입한 친환경 전기노면 소형 청소차 제작식과 시연회를 24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열었다.

행사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남홍숙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 지역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노면청소차는 처인구 중앙시장 일대, 기흥구 신갈오거리 구도심 일대, 수지구 풍덕천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면도로와 좁은 길 등을 청소한다.

용인시는 1대 가격이 약 2억 1000만원인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를 모두 3대 구입해 용인 3개구에 배치했다. 길거리 바닥 청소용 브러시와 흡입장치, 살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형소차의 시연을 본 시민들은 좁은 길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다.

전기 배터리로 약 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소형 청소차는 중·대형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진입이 가능해 도시 곳곳의 청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집진 능력이 높아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개구에 1대씩 배치된 청소차는 4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기노면 청소차는 기존의 대형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면도로나 좁은 길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신개념 청소차량으로 배기가스도 없고 소음도 거의 없는 친환경 차량"이라며 "앞으로 중앙시장 골목길을 비롯한 용인의 작은 도로가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덕분에 한층 깨끗한 곳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에게 산뜻함을 주고 용인 이미지도 고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차도의 눈을 치울 뿐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인도제설기 3대를 구입해 3개구에 배치해서 사람 통행이 많은 곳과 비탈진 곳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해 시민의 박수를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니 시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기노면청소차 시연회를 지켜본 뒤 중앙시장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중앙시장 상인회



와 함께 공동으로 펼쳤고, 상인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중앙시장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용인중앙시장과 주변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했다. 국비 155억원, 경기도비 31억원이 지원될 이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및 스마트 재생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4년 간 이미 확보한 국·도비에 용인시비 346억원을 투입한다. 4년간 모두 652억원이 들어갈

시재생 사업은 중앙시장과 주변을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업·창업 및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중앙시장의 청과물 상인은 "용인중앙시장을 시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따낸데 이어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까지 구입해서 시장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겠다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중앙시장의 상인들도 시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붉게 물든 철쭉의 향연...4월 29일 '월롱산 철쭉제'

파주시 월롱면이 4년 만에 '제2회 월롱산 철쭉제'를 개최한다.

월롱면이 주최하고 월롱면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월롱시민공원(월롱면 덕은리 산 134-1)에서 개최된다.

월롱면 주민들은 2017년 식목행사로 월롱산 정상에 철쭉 2만주를 식재한 이후 매년 월롱산 일대에 철쭉 식재를 이어왔으며, 오늘날 10만 주의 철쭉동산을 이루게 됐다.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누구나 가깝게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철쭉사진 콘테스트, 철쭉백일장,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의선 월롱역과 행사장을 30분 간격으로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최성근 주민자치회장은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쁜 꽃도 구경하고 경품도 타가는 등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창업 정보부터 투자유치 지원까지...인천시, 온라인 플랫폼 선보여

인천광역시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인천 창업플랫폼'을 4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업플랫폼에 그동안 관내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이 각각 제공하던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한데 모아 창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축했다.

그동안 시는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2022년 6월부터 창업플랫폼 조성을 준비했고, 올해 2월 구축 완료 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창업플랫폼에는 관내 창업지원사업, 멘토링, 스타트업 정보 등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 창업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인 빅웨이브와도 연계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관련 정보를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시는 플랫폼 운영으로 축적된 창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포털(K-Startup)과 연계함으로써 중앙부처 창업 지원사업 공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을 위한 정보도 제공해 창업플랫폼을 창업과 투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창업플랫폼이 창업자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내 창업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플랫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창업자 친화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안성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열린 놀이터'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은, 수강할 수 있는 회원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늘 아쉬운 점이었다. 이에 더 많은 주민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열린 놀이터'. 출석부도 없이 누구에게나 문을 열고, 최신 유행가를 따라 춤추는 분위기로 2층 다목적실을 꾸며 놓았다.

오후 1시가 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음악을 틀고 함께 운동한 후 마무리까지 하는 분위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평소 오십견으로 힘들었다는 한 주민은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게 너무 재미있어 매일 놀러 왔는데 어느새 물리치로도 끊었다"면서, "병원에서 왜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시흥시, 거북섬 물결과 함께하는 서핑 버스킹 '매주 토요일 만나요'

시흥시가 지난 22일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광장에서 열린 서핑 버스킹(거리공연)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1시간 동안 열린 버스킹에는 인디포크 공연과 마술·마임·코미디 공연이 펼쳐져 시민 및 관광객에게 웃음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거북섬 버스킹 'Waves Of Music'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되며, 웨이브파크가 개장하는 4월 29일과 서핑존이 개장하는 5월 27일에는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월 27일에는 웨이브파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되는 날로, 버스킹 공연도 웨이브파크 내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버스킹에는 인디포크, 대중가요, 퓨전국악, 뮤지컬&오페라와 같이 음악 공연뿐 아니라 마술, 마임, 코미디, 퍼포먼스가 있는 마술쇼 등 다채



로운 공연으로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시흥시는 올 한 해 거북섬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가 즐겨 찾

는 거북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서핑 버스킹이 거북섬을 명소화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용인도시공사, 제2기 웹서비스 시민모니터단 위촉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25일 '제2기 웹서비스 시민 모니터단'으로 10명의 시민을 위촉했다.

웹서비스 시민모니터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민 웹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에 첫 출범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6명을 더 선발했으며,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새로운 활동도 추가해 시민들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을 선발했는데 이에 공사 관계자는 "모든 세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개선사항을 들으면 더욱 완성도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골고루 선정했다"라며 "IT 관련 지원자부터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월까지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기능 점검과 정보



서비스 개선 제언 등 전반적으로 공사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최찬용 사장은 "홈페이지 운영자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편리

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모니터단의 도움을 통해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봄철 급성호흡기감염증 주의하세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플루엔자 환자의 봄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포화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 씻기, 개인



물품 공동사용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업무제한 및 출입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와 좋은 교육정책 도입 머리 맞대

21일, '정책구매제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 공동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정책구매제를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제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구매제 도입에 따른 정책 제안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임 교육감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하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학수 부위원장의 영상 인사말로 시작했다. 임 교육감은 축하 인사에서 "정책구매제는 모든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형성에 함께 참여한다는 소통과 참여의 의미가 크다"며 "의미 있는 정책 구매제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구매제로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황진희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팀장, 이호동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의 발제가 이뤄졌다.

패널로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 임희재 안양시 만안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건우 당동중학교 교감이 참여했다. 토론 내용은 ▲정책 제안 제도의 의의와 과제 ▲정책구매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 ▲정책구매제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축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바라본 제안 제도와 정책구매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교육청의 속의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구매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구매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창성 있는 제도 확보와 함께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협업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 교직원 등 도내 2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조혜영/기자

고양특례시, 도정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일산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틀 마련

고양특례시는 24일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관련부서 공무원, 총괄기획가(MP)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전에 수립된 2030 도정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지인 일산신도시, 화정택지 등 고양시 노후 택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다. 이어, 국토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절차 이행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병행하여 보다 속도감 있는 고양시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의 공공기여를 통해 자속기능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성시, 각종 인·허가 조직문화 조기 정착 청렴 직원단합 대회 개최

코로나19에 움츠러 있던 몸과 마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 치유하고 친목과 형령에 주안점을 두고 부패방지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단합대회에서 각종 인·허가 조직문화 조기 정착 청렴 안성 실천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에 기반한 사례 중심의 청렴 관련 놀이 문화 청렴퀴즈 모둠찾기, 족구대회, 등산 등을 진행했다. 도시정책과 직원들은 반부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자유

스럽게 그동안 답답한 사무실 분위기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서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청렴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해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김동연,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도자 될 것"

경기도, '경기 RE100 비전' 발표

경기도가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의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4일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삼성전자·SK·애플·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 RE100' 비전은 미래세대·차기 정부에 기후 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21.6%로 낮추고,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대폭(14.5%→11.4%) 축소된 것과 대비된다.



▲ 24일 오후 시흥시(주)마팔하이테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병택 시흥시장, 강금실 기후대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주석 마팔하이테크 대표이사,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최철호 스마트허브 경영자협의회장, 박재택 SK E&S 부사장 및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전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장, 산단 입주기업, RE100을 실천하는 도내 대기업과 경기도 도민추진단,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도의원, 기후대사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취지에 맞춰 수소자동차를 타고 행사장에 온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세우고 있는 계획의 실천과 보다 나은 방안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량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

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 RE100' 비전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의 과감한 기후 위기 대책을 담았다. 도는 이날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에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과 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도는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수립한 신규 산업단지에 공급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기존 산업단지 지붕에는 민·관 협력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도민들의 기회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한계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으로까지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기회소득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데,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도 증진하고, 에너지 절약 등 도민들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시·군 협력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의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할 경기도 기후대사와 23명의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경기도 기후대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 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

는 가고 역할을 담당한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서 앞서는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과 정책 자문에 주력하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 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전의한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파트너로서 향후 비전과 의견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들은 기성-미래세대, 이론-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도시사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직접 운영해 기후 위기 극복 대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순 자문의 역할이 아닌 문제해결형, 실천형 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RE100 이행을 위해 이날 비전선포식에 사용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사용했다.

조혜영/기자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광명시민의 건강과 선진 미용산업 훼손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 훼손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회장 김영애)는 25일 정부가 노은사동에 이전하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이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과 선진 미용산업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애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장은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면 소음, 먼지로 대기가 오염되어 광명시민의 미용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광명시는 서울과 접하면서 도시 중앙에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 좌우에는 안양천, 목감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곳에서든 쉽게 산과 천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은사동 일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덕산~구름산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어 녹지축이 단절된다. 또한, 소음, 분진, 미세먼지가 늘어나 반경 500m 내 목감천까지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며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광명시민의 미용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반경 250m 내 경기도 최대 노온정수장이 있어 식수 오염으로



▲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는 25일 정부가 노은사동에 이전하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이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과 선진 미용산업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해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 86만 시민의 생명권 위협도 예상된다. 김영애 회장은 "차량기지는 한번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내보낼 수 없

다. 광명시민들의 미용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의 의무이다"라며, "우리 미용인뿐만 아니라 광명시민 전체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막지 못한다면 후

손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몽민/기자

경남도민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경남'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24일 '4월 도민회의' 개최해 도지사와 도민 소통 나눠

경남도는 2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와 도민 10명이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4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회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보건, 여성·가족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남도민 10명을 초청해 해당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월부터 3월까지 세차례 도민회의에서 각계각층의 37명의 도민대표들이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셨다"며 "도민복지와 관련해 제안해 주신 정책과 말씀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도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민회의에서는 참신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곽인철 경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환경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해 환경문제와 노인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권두영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워킹맘으로서 현실적인 육아 고충을 토로하며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건의했다.

김하람 경상남도 코드림 청소년단체 대표는 도내 고교생의 약 1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최은하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 창원보건소장으로 의료계를 은퇴한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최근 불거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약사회가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경남도는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회의 후에도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에서 '행복한 도민'은 도민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복지·보건, 여성·가족분야와 관련이 있다"며 "도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4월 도민회의는 유튜브 '경남 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한편, 도민회의를 마친 박완수 도지사는 실무본부장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18일 전남과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전남과 체결한 협약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행정협회의 구성, 양도가 참여하는 공기업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S-BRT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도지사 결재 시 문제점 발생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행이 요구

된다"며, "실제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군수의 지역 현안 건의에 시군이 모여 도가 되고 시군 현안이 도의 현안이라며 도정에 반영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도의원 발언은 도민의 의지라며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도청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 존재와 부서의 존립목적을 고민하고 파악해서 업무추진해야 한다"며 "부서장의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신속적인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도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울진군-대구지방국세청,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진군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지난 21일 울진군청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울진군-대구지방국세청 업무협약은 올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경북지역 3곳(전국 15곳) 중 최초로 진행됐으며,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정 상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산단에 기업들의 원활한 입주와 더불어 울진군의 원자력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대구지방국세청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컨설팅 제공 ▲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서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

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을 제출하면서 수소 관련 8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수요와 산단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올해 3월 15일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원자력 수소 관련 대기업 및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을 위해 대구지방국세청과 함께 손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 안정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마케팅 나서

4.20. 일본여행협회(JATA)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일본 황금연휴 골든위크(4.29~5.7)를 겨냥해 부산 관광의 제1주력시장인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일본 핵심 2개 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세일즈 마케팅을 진행했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 부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1%를 차지하고, 현재 관광시장 회복 속도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 부산관광의 제1주력시장이다. 이번 일본 주요 도시 방문을 통해 두 지역 간 관광 활성화 등 상호 교류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방문 첫날인 4월 20일, 시는 일본여행협회(JATA) 규슈지부와 일본 관광객 송객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일본여행협회 규슈지부장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은 부산 관광객 집중 유치뿐 아니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호협력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일본여행협회 소속의 일본 여행사 10개사와 부산관광업계 5개 사는 관광상품 공



동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규슈지역은 부산 관광의 핵심시장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4월 21일~22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에서 2,000여 명의 현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K-관광페스타'가 진행됐다. ▲한류스타 토크쇼 ▲너버벌 공연

등 K-컬처를 탑재한 로드쇼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부산관광 집중 마케팅도 현지 관람객의 큰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홍보부스를 마련해 일본 시민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부산관광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시는 현지 세일즈 마케팅과 함께 개별관광객(FIT) 대상 부산행 프로모션을 선사·온라인여행사·부산관광패스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부산행

선사 이용객 대상 주요 관광시설 입장권 지급(4월~), 선착순) ▲비짓부산 패스 온라인여행사 할인 프로모션 ▲일본 유력 온라인여행사(라쿠텐트래블)와 연계한 숙박 할인 쿠폰 지급(5월~) 등 실질적 프로모션 진행으로 방한 잠재 수요를 부산행으로 유도 중이다.

또한, 올해 최초로 해외 송출사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해 현지 맞춤형 상품을 구성하는 등 대규모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업체 모집을 4월 중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 모객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건인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일본 항공 노선은 주 200편으로 코로나 이전의 80% 이상 회복됐고, 일본인 대상 트립업드라이버의 선호 관광지 조사 결과 올해 봄 관광 회복률이 높은 관광지 1순위에 부산이 차지하는 등 부산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일본 시민의 K-컬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부산관광 수요로 빠르게 전환시켜, 부산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영덕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영덕군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10시부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영덕군 장애인 한마당 대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내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의 원더풀아랑고고장구의 신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50여명과 모범봉사자연합회 회원 15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화합의 장이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영덕군장애인연합회 김동원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대한적십자영덕군지부협의회, 모범봉사자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및 권익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마지막은 영덕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합창단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문화/기자

2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4년만에 열린 장애인한마당대잔치로 연애 공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영덕군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홍보,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서비스 등 홍보,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취업 홍보 및 구직 상담 부스 등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과 대한적십자영덕군지부협의회 회원 50여명과 모범봉사자연합회 회원 15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화합의 장이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영덕군장애인연합회 김동원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대한적십자영덕군지부협의회, 모범봉사자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및 권익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청송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온힘'

청송군이 점차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4월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군수 및 실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2026년까지 청송군 인구정책의 토대와 연도별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지역 여건분석과 주민 의견청취(설문조



사)를 통해 도출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 등을 바탕으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업들을 제안·검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이탈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송 무료

버스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유동인구 증가방안, 농업기술력 고도화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귀농인 유인효과 증대방안,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도 제고 방안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와 사업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패러다임에 맞춰 정주민구의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근·관광·휴양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누구나 살고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제56회 과학의 달 행사 실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경상북도교육청은 21일 과학의 달을 맞이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및 일선 학교에서 '제56회 과학의 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교육 진흥에 공이 큰 죽도초 김진석 교사와 23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성암초 이대원 교사와 44명이 우수과학교사 교육감표창, 남성초 김현호 학생 외 449명이 우수과학어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교육청은 과학의 달을 맞이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및 교육지원

청과 협력해 다양한 참여형 과학행사를 운영하고, 교사주도의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학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에 참여해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과학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영·호남 교육 교류 사업 사전협의회 운영

담양·영덕교육, 소통과 협업의 길을 걷기 위한 마주보기



영덕교육지원청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영덕교육지원청 및 영덕군 일원에서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원 6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영·호남 교육 교류 사업 사전협의회를 운영했다.

담양교육지원청과 영덕교육지원청은 영·호남 교육 교류 사업의 MOU 체결 지역으로, 각 지역의 특색교육 및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만남의 첫 출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18일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의회에서는 향후 교육 교류 사업의 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 담양교육지원청 및 담양군 일원에서 가질 2차 사전협의회, 교육 교류 방문에 대한 사안을 협의했다.

19일에는 영덕군 문화해설사와 함께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전통마을, 목은이색기념관, 신돌석장군 생가 및 유적지를 둘러보고 영덕지역 전통문화 탐방과 교육 교류의 방안에 대하여 함께 소통했다.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이숙 교육장은 "이번 사전협의회는 담양과 영덕의 교육 교류를 위한 첫 만남인 만큼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박재식 교육장은 "담양과 영덕의 거리는 멀지만, 앞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협력적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의성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07시 50분부터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서의성유니텍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2023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먼저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자치회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선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자치

회 학생들은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등교 인사를 먼저 건네고, 학교폭력예방 물품을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 가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학교폭력예방에 있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축분 소재산업화가 시적 성과확장성만 남았다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잡아...

경북도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자원화 기술 고도화와 함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축분 소재산업육성 중이다.

경북도는 2020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축분 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개발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캠코에너지솔루션과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연구 결과 화석연료 에너지원 대비 50% 이상의 연료비 절감과 30%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가축분뇨 100톤(함수율 75%)을 31톤(함수율 20%이하)의 고체연료로 전환·활용 시 온실가스도 44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 가축분뇨처리·농촌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다.

실증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올해 축분이용 농촌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축산업의 걸림돌인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만들어 농업부문에서 사용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등이 시범사업에 함께 했다.

시범사업대상은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축분고체연료의 수요처인 시설하우스 및 건조시설, 퇴비공장 등 2MW급 4개소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 전 한국전력공사의 사전컨설팅(에너지 진단 및 열용량 산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효율성을 위해 4개소가 소진되어도 2024년도 예비사업자로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계사업(제도개선, 규제완화 등)과 연소 후 발생하는 잔재물(Ash) 활용방안으로 비료공정 규격 등록·비농업계(건설자재, 복도재 등) 분야에도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축분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집진 및 탈질·탈황 장치 설비 및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가축분뇨의 완전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제조공장 설립 및 민간투자 유인, 전·후방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농촌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규제 개선 및 지원강화로 축분소재산업 체계적 육성 확대 - 농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협



업을 통해 고체연료 제조시설 인허가 및 소각시설 용량 기준 완화, 사업 지원체계 개편

둘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

- 축분 고체연료의 발열량 개선 및 저장기술, 환경설비 고도화 등 최적생산기술 및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 등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감축요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소비문화는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시장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소비라는 미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투자금융회사 등

에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 저탄소 금융지원·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확보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양한 축분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뛰놀며 배우는 선비정신 영주 선비세상 '어린이선비축제'

어린이 선비 과거시험·발자국 런웨이·힙선비를 이겨라 등 운영

영주시는 선비문화축제 기간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1세기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 K-문화 테마파크 영주 선비세상 일원에서 '어린이선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어린이선비축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15개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선비축제기간인 사흘 동안은 누구나 선비세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책을 통해서가 아닌 뛰놀며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이번 '2023 영

주 선비세상 어린이선비축제'는 △어린이 선비 과거시험 '세종임금, 인재를 뽑다' △대형 풋프린팅 아트 '발자국 런웨이' 등의 스페셜 프로그램 △뮤직 퍼포먼스 △쿠잉클래스 △액티비티 프로그램 △선비세상 유랑극단 등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체험 및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어린이 선비를 선발하기 위한 '세종임금, 인재를 뽑다'는 과거시험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새롭게 재해석한 콘테트로써

저학년을 위한 세 가지 과제 및 고학년을 위한 역사 골든벨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된다.

선비세상 관계자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선비문화와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선비세상은 K-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어린이날 행사 개최 "예천곤충생태원에서 신나게 놀자!"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곤충 퍼레이드, 페이스 페인팅 등 풍성

예천군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천곤충생태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주인공 어린이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행사로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곤충 퍼레이드 △페이스 페인팅 △나비 방사 이벤트 △마술 특별공연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해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는 행사 기간 중 예천곤충생태원을 방문하고 생태원 홍보 유튜브 영상을 제작



해 신청서와 함께 5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 창의성, 유튜브 조회수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우수 1편 100만 원, 우수 2편 각 70만 원, 장려 3편 각 50만

원, 노력 11편 각 10만 원 등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곤충 퍼레이드는 '살아있는 곤충 세상 속으로!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험'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꿀벌, 나비 날개 등 곤충 장신구를 무료 대여해주고 퍼레이드를 펼쳐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즉석 포토 타임을 통해 기념사진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5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을 시가지에서 개최되는 '2023 예천축제'와 연계해 축제 입장객이 예천곤충생태원을 방문하면 1천 원을 할인해 준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이벤트로 어린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신비로운 곤충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예천군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예천곤충생태원에서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교통공사, 계명대동산의료원과 의료봉사 행사 가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계명대 학교동산의료원과 지역민 건강을 위한 의료봉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21일 문양역 대합실에서 의료봉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소속 임상병리사, 심리사, 암치유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담간호사 등 6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의

료진은 당뇨검사 및 상담, 암질환 상담,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이 행사는 매월 셋째 금요일(14시~16시30분)마다 문양역에서 열린다.

또한 지난 12일(수)에도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과 건강체조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양역에서 어르신을 위

한 건강체조 프로그램 행사도 추진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역동성화 사업의 하나로 노인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문양역을 '노인건강테마역'으로 조성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4개의 건강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이 작년 한 해 동안 2,300여 명에 달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지역민 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주신 계명대동산의료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양역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신라의 황금문화와 실크로드 유물 전시회 가져

실크로드 유물을 통해 역사와 문명 교류의 가치 재조명

경북도는 25일 도청 안민관 K-창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박천수 경북대학교박물관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 황금문화와 유리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경북도청 안민관 서편 로비에서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수집한 로마와 페르시아, 이슬람의 유리기, 유라시아 금관 및 복식 유물 28점을 통해 신라의 황금문화와 더불어 유리가 초원으로, 사막로, 해로로 이입되는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개막식에 진행된 박천수 경북대학교박물관장의 실크로드 문명사 강연에서 신라가 유라시아를 향해 열린 진취적인 국가임을 엿볼 수 있었다.

경북도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류한 신라인들 특유의 진취성과 포용력, 개방정신이 지금의 경북도와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근원이라 생각하고, 실크로드와 더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하늘길 또한 앞으로 경북의 무대를 세계로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무

트 조성사업을 통해 실크로드 주요 교역국과 꾸준히 학문, 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융복합 초연결 시대에 발맞춰 개방적인 신라인의 정신을 계승 받아 문화를 융합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신라인의 힘으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만큼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경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방시대를 통해 경북이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

우리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 먼저 살펴봐야죠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는 2023년 4월 24일 울릉한마음컴퓨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마음컴퓨터(장난감도서관) 이용 아동들을 위한 편백나무 및 볼풀 등 장난감 소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윤정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매일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석해주시

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 아 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각자의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지역 아동들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땀방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현중/조경제/기자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바이크홍보단 발대식 개최

바람을 타고 전해진 산나물의 향기를 직접 느끼러 오세요



영양군은 지난 23일 (재)영양축제관재단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배창석)와 경북북부할리오너스그룹 H.1(리더 김주식) 회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청 전정에서 영양산나물축제 바이크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북북부할리오너스그룹 H.1'은 2018년 창단되어 영주, 안동, 예천 등지에 거주하는 회원 60여명이 바이크를 통한 전국 여행과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바이크 동호회이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영양산나물축제의 전국 홍보를 돕고자 뜻을 모았고, 발대식 이후에는 축제성공을 기원하는 음식가치 라이딩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바이크 홍보단은 라이딩 투어 시에 각 바이크에 영양산나물축제 홍보깃발을 부착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활동을 펼친다.

김주식 경북북부할리오너스그룹 H.1 리더는 "몸에 좋은 산나물을 테마로 펼쳐지는 축제를 직접 홍보하게 된 만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

했다.

또한 배창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영양산나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해주시는 경북북부할리오너스그룹 H.1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력해주시는 만큼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월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따뜻한 손길로 바른사회 만들기

앞장서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여성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여성회는 4월 25일 고아음행복지센터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여성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장조림, 연근조림, 물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25개 읍면동위원장들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 50세대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이웃 돌봄 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옥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여성회장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 고아음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께 밑반찬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전달되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여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여성회는 1997년 결성된 봉사단체로 관내 독거

노인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밑반찬 배달 및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를 비롯해 매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행복하고 건강한 바른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문경새재에서 즐기는 '2023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개최

4월 28일~30일, 5월 5일~7일, 총 2회차 풍성한 행사로 꾸러

문경시에서 '2023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이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 5월 5일부터 7일 총 2회차 걸쳐 국민여가캠핑장, 찻사발 축제장 등 문경새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주최하고 (재)세계유교문화재단, 안동MBC가 주관하여 펼쳐진다.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비대면 시대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한 캠핑과 트레킹(걷기) 그리고 친환경을 접목한 축제로 전년도 단산숲속캠핑장에서 개최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바가 있으며, 올해는 문경찻사발축제와 연계해 문경새재 일원에서 펼쳐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는 1회차에서 ▲안동MBC '정오의 희망곡' 오픈 스튜디오 ▲문경로컬푸드 캠핑요리대회 ▲야간음악회 ▲찾아가는 영화관 '감쪽같은 그녀' 상영과 2회차에서는 ▲문경새재 라디오편어럼 ▲신스틸러 공연이 펼쳐지는 등 2박3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찻사발축제 개막식인 4월 29일에는 안동MBC '정오의 희망곡' 오픈스튜디오가 12시에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광화문 앞에서 펼쳐지며, 가수 길구봉구, 임재현, 박현서, 오예린 등이 출연하여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한 5월 6일에 진행되는 "문경새재 라디오편어럼"은 문경새재 2관문까지 약 6.4km를 라디오방송을 들으며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준비된 공연을 관람하고 찻사발 축제장을 탐험한다. 같은 날 '친환경 플로깅 이벤트'는 가족 단위, 젊은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쓰레기 줍기 후 SNS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2박

3일 캠핑 사이트는 2회차 모두 예약이 빠르게 마감됐으나, 정오의 희망곡 오픈스튜디오와 라디오편어럼, 플로깅 체험 등은 찻사발축제 현장을 찾은 모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올해 찻사발축제와 연계하여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양쪽 다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방문객이 문경새재, 단산 등 문경만의 독보적인 자연환경과 여러 체험행사를 통해 힐링과 체험을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정자교 붕괴 관련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 교량 긴급점검 지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따른 지역 내 교량 안전점검과 황성공원 내 임시 시설물 철거 상황을 직접 챙겼다.

주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구조로 지어진 교량(켄텔레버구조) 및 유사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방식의 켄텔레버 구조로 지어진 알천교, 보문교 2곳과 월성교와 전촌교 등 확장인도교(데크) 방식 교량 지어진 교량 10곳 등 총 12개 교량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5일 간 실시될 이번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정밀진단과 함께 긴급 보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타성에 젖은 형식적 진단이야말로 오히려 사고를 야기하는 위험 요소"라며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경주 만들기에 최



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낙영 시장은 황성공원 내 시설물 등의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 회복도 주문했다. 앞서 시는 2019년과 2020년 신라문화제 개최를 위해 원두막 24개와 간이무대, 23개 읍면동의 희망돌담 및 옹벽 등을 조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신라문화제의 상설 행사장과 23개 읍면동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물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021년 경북도의 '2030년 경주

공원복지기본계획안' 가결됨에 따라 황성공원을 원형대로 보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원두막 24개와 간이무대를 철거한데 이어 이달까지 23개 읍면동 희망돌담과 옹벽을 모두 철거했다.

주낙영 시장은 "임시 시설물이 철거된 부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해를 식재해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태용/기자

건강 장수 고장 구례,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실시

인지장애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예방 중요성 홍보

전남 구례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지능력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구례 5일시장에서 한마을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마을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예방 제조 시연을 시작으로, 치매 극복을 기원하기 위한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치매 부스와 기억 키움 다방을 운영하여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친구가 되어주는 치매 파트너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홍보했다.

구례군치매안심센터장인 김형진 보건의로원장은 "치매는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보건의로원은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상담, 치매 예방 교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모두 하나돼 즐겼다” 영암군, 대불산단 내·외국인 한마당 대회 ‘성료’



영암군은 23일 대불종합체육공원 내 운동장에서 ‘대불산단 내·외국인 한마당 대회’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4월의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조선해양기자협회동호회에서 주최하고 영암군과 (주)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협력회사협의회를 비롯한 10개사의 후원과 참여로 마련됐으며, 딱지치기, 배구, 피구 등 다양한 놀거리와 푸짐한 경품으로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부, 삼호 119안전센터의 지원 하에 무료 결핵

검사와 산업안전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가 운영되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생각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펼쳐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참여자 수가 대폭 늘어났고, 장기자랑이나 체육경기에 앞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화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불산단 내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친목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참가업체와 청년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가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을 앞두고 참가업체와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은 지역의 수제맥주업체와 소상공인의 식음료 부스, 기념품·체험상품 판매 부스와 호텔, 식품업체 등 기업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축제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식음료 등의 판매부스는 군산시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기업홍보는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업체면 된다.

또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도내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에 참여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로컬 수제맥주 축제로서 지역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

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은 군산 수제맥주만으로 블루스 음악과 접목하는 차별화된 시도로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됐다”면서 “올해는 군산맥주와 함께 라이브 공연을 즐기려는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두배인 5,000개의 좌석을 갖추고, 16개팀의 블루스밴드와 국외 교류도시 수제맥주 전시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도정·14개 시·군정 소통 마무리

14개 시·군 방문해 ‘함께 성공’에 대해 의기투합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을 서로 공유해 함께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전복을 구현하기 위한 공감 소통의 시간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복도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2월부터 현장 중심 실용주의를 강조한 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2020년 이후 중단된 시·군방문을 3년 만에 추진했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시·군과 성공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더 특별한 전북시대 준비를 원점으로 함께 뛰어 야 한다는 판단 아래, 『더 특별한 전북시대』의 슬로건으로, 지난 2월 7일 일일실군 방문을 시작으로 4월 18일 순창군 방문까지 7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민선 8기 시·군 방문은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위주의 형식적인 대면이나 의전 행사를 최소화하고, 도지사가 시·군청 청원과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직접 도민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소통에 집중했다.

지난 시·군 방문기간에 김 지사는 일일 명예시장·군수 위촉을 시작으로 시·군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주시 왕의공원 프로젝트, ▲군산시 특수목적 선진화단지 구축, ▲남원시 합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도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등 시·군과 함께 추진할 도정 현안을 당부하는 등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군청 ‘청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민선 8기 현안 해결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도정정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청원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나눴다.

특히, 청원과의 소통시간에는 도지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기술, 슬기로운 직장생활 꿀팁 등 청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완주 떡메마을, 전주 혁신창업허브, 정읍 SK네슬리스, 무주 스마트팜 무주원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순창 농촌유학그룹, 고창 청년협의체, 장수 농업인단체, 김제 수출기업그룹 등 직능별로 다양한 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최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모아 도정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야 한다.”며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전복을 향한 의지를 나눴다.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시·군방문 기간동안 5,800여명의 시·군 직원, 기업, 도민들을 만나 총 120여건의 다양한 현장 건의가 제시됐으며, 건의된 사항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 진단과 해법 모색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영역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발굴하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는 지난 4월 21일 인구감소 진단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주민, 관계기관,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남원형 기본계획 수립에 실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경식 시장은 “시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생활연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

“민생안정 최우선” 나주시, 2023년 첫 추경 1조1119억원 편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1119억원을 편성해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8억원이 증액된 1조11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189억원이 증가한 1조465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이다.

분야별(예산순)로는 교통·지역개발에 281억원, 농업 232억원, 일반행정·안전 205억원, 사회복지·보건 173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0억원, 문화·관광·교육 118억원, 환경 59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나주시는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설·추석 명절 연휴를 제외한 상시 할인은 지류·모바일 5%로 이번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모바일 화폐는 10%, 지류는 7%까지 할인을 적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 및 농기계 면세유 인상 차액분’(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7000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및 물품(3억1000만원), AI 생계·소득안정자금(14억원),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2000만원) 등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예산에 총 161억원을 책정했다.

나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마을회관 전체 620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을 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2025년까지 연도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었던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 편의를 최우선 해 이번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고 모든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패키지 사업 중 하나인 ‘취업청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사업에는 1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임대주택 공동주택 총 30가구를 무상 임대 제공하고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4억4000만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5억5000만원), 치매 예방을 위한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1억6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4000만원), 출산장려금 확대 및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1억원) 등 145억원 규모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예산도 포함됐다.

나주시는 시대나스 노선 개편에 따른 수요 응답형 플랫폼 구축에 2억3000만원을, 100원택시 확대 13억원, 마을택시 시범운영 예산 3억8000만원을 반영해 민선 8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대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61억원, 가로·도로 환경개선 39억원, 공공기관 심장중격기 교체 및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보급(1억원),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도입(5000만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에 총 36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인 전력난도체 발전전력 수립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공적인 마무리

4년만의 개최...3일간의 축제에 수만명 다녀가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K-명예관광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수만명이 이번 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SNS 이벤트와 축제 기간 동안 스탬프 콜렉션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와 미션 수행자에게 모바일 쿠폰과 ‘여가 진도어’ 1' 책자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축제 개막식에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과 세계적인 비보이 댄스 그룹 진조크루가 출연해 방문객들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70여종의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체험거리도 진행했다.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도 씨김국, 남도들노래, 진도복놀이, 강강술래, 다시래기, 조도땀노래 등 다양한 민속문화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글로벌존에서는 글로벌 음악여행, 밸런스 쇼,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씨름,림보 대회, 컬러풀 진도 등의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와 외국 관광객들의 활발한 참여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신 미디어 아트 기술로 빛과 영상을 활용한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 야간 콘텐츠를 운영,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기하학적인 점·곡선·면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물과 빛의 순환으로 실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효과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진도올금, 구기자, 검정쌀, 김, 미역, 다시마 등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판매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위촉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4년만에 개최되는 축제인만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청정바다 진도만의 민속문화와 예술, 수려한 풍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이제는 됩니다'...광주광역시, 주요현안5+1 속도

군공항 이전·지산IC·무등산 정상개방 등 숙원사업 속속 해결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숙원사업들을 속속 해결하고 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지산IC 진출로 대안 제시, 무등산 정상 개방 및 방공포대 이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 지역 숙원사업 '군공항이전' 날개...최대 성과 꼽혀

이른바 5+1 주요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군공항이전 문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추진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

여기에는 민선 8기 소통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여야 지도부의 협력을 끌어내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전격 발표했고, 취임 4개월만인 11월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기 위한 달빛동맹 협약'을 맺어 그동안 막혀있던 군공항이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도 빛났다. 송갑석·이용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토대를 쌓았고, 강 시장은 여야를 넘나들며 정지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여·야·정·지자체가 국회에서 현안간담회를 개최, 군공항이전 사업의 국가 지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변수가 생길 때마다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

방부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 지난 10여년간 풀지 못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 시민편의·안전·경제성 두루 갖춘 '지산IC 진출로' 해법

안전성 문제로 꼬여있던 '지산IC 진출로' 해법도 찾았다. 시민 편의와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대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광주시는 2021년 안전성 논란으로 지산IC 진출로 개통을 미룬 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다가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때 지산IC 진출로 문제를 공론화하며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섰다.

취임 직후 강 시장은 지산IC 진출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용역 평가'에 들어갔다. 강 시장은 특히 "안전성이 문제되면 당연히 기존 좌측 진출로를 폐쇄해야 하지만 시민 염원인 지산I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도로과는 광주경찰청·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여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77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되, 시설물의 80~90%를 활용하는 대안을 찾게 됐다. 시장과 공직자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톡톡히 본 것이다.

■ 민선 8기 '집중력 발휘' 특효... 눈에 보이는 변화 가속

이밖에도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하철2호선 공사 정상궤도 등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간 소통에 근거한 맞춤형 전략과 집중력이 현안 해결의 결정체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공직자 간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소통과 속의의 과정인 '융합행정'이 해법을 찾는데 돌파구가 됐다. 실제 간부회의, 정례조회 등 민선 8기 회의의 주된 방식은 '토론'과 '속의'이다. 실국 칸막이를 넘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강 시장의 추진력과 공직자들의 맞춤형 전략이 합해지면서 '집중력'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남도 등 타 지자체는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과의 협력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으로 가뭄에 잘 대응했고, 군공항특별법 제정,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개방 및 방공포대 이전,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통합돌봄 시행, 경제위기 대응 민생정책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가 비단 운에 의한 것만이 아닌 5000여 공직자들의 집중력 있는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격려했다.

강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도시에 활력이 돌고, 개인의 삶에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결정까지 늘 직원들과 토론하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일이 습관화·체계화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병수/기자

전남·경북, 상생협력으로 새 지방시대 활짝

27일 순천정원박람회장서 '영호남 상생발전 대축전' 개최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서 상생장터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전라남도도와 경상북도가 27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에 앞장서는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을 주제로 열리는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은 지난해 10월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서 개최한데 이어 이번엔 전남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화합하며 상생과 협력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마련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개막식, 영호남 화합콘서트, 영호남 상생장터, 청소년 끼 페스티벌, 여성단체 및 새마을회 교류, 열혈 청년 페스티벌, 문화예술교류 전시회, 영호남 증가·고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경북예술단과 전남도립극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 도지사의 명예도민증 전달, 케이(K)-무비제작 지원으로 영상산업 활성화와 지

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포지티브스튜디오와 협약, 상생화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 콘서트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콘서트엔 영호남 출신 가수인 송가인, 박진도, 김효중, 은가은, 김태우, 코요테 등 유명 가수 9팀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해 나간다.

또 전남·경북도의회는 '상생발전 화합대회', 전남·경북도교육청은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해 소통·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대축전 기간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전통예술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 대축제'를 함께 개최해 영호남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경북에서 개최한 열기를 이어 전남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가 전남과 경북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익산시, 봄나들이 불청객 야생진드기 예방 총력

안전한 야외활동 위해서는 밝은 색 긴 옷과 바지, 양말 착용 필수

익산시 보건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책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은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등이며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다.

지난해 익산시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쯤쯤가무시증으로 62건(전국 6,232건, 전북750건)발생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1건(전국 192건, 전북 10건)이 발생했다. 특히,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등산로 입구, 공원 출입구 등에 13개의 기피제자동분사기를 설치하고 29개 읍면동사무소에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를 비치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소매, 신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기를 각별히 당부했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농작업,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다녀왔을 때는 반드시 목욕을 시켜주고 촘촘한 빗으로 털을 빗어주며 꼼꼼하게 살피주는 것이 좋다.

이진훈 소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명률이 20%로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봄철 야외활동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장흥군, 중국 세일즈 본격 추진

조석훈 부군수 중국 장춘에서 장흥군 홍보로 큰 호응과 관심 이끌다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가 일어난 곳으로 장흥군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가 위치한 곳이며 안중근의 유산을 공유한 도시이다.

이를 통해 장흥군은 본격적인 2023년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가치 창출로 관광재 500만평 시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또한, 신규 우호 도시 확대를 위해 내몽고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우란차부시를 방문 1차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자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하반기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란차부시는 인구 270만명, 면적은 54,473km²으로 중국 전국 식품 안전 모범도시이며, 목축과 육류, 감자, 오트밀, 야채 식품 등 가공업이 발달했다.

박재원/기자

완도군, 전남체전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 등 준비 착착

200만 전남 도민 화합의 스포츠 축제인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다음달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전남체전은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이, 전남장애인체전은 골프, 론볼 등 21개 종목이 30개소의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회 기간 중 22개 경기장에서 11,000명(도체 6,000명, 장체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24,000여 명의 관람객(선수단 가족 및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성공·참여 체전, 안전·경제 체전, 문화·관광 체전, 화합·희망 체전'이라는 목표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도·군비 포함 총 17억 원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안전 펜스, 육상 보조 트랙 설치, 경기장 관람석 설치 및 시설 등 14개소 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수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4월 중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급 국민체육센터, 청해정,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농어민체육센터, 고군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 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체전 개최 전까지 경기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체전이 우리군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화순군, 한·중 킥복싱 교류전 및 전국대회 성료

국내팀, 혈전 끝에 중국 강소성 산타팀에 4:3 승리



▲ 한중 킥복싱 교류전 및 전국대회가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22일 18:00부터 진행된 IB스포츠 생중계방송에서 구복규 화순군수가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한·중 킥복싱 교류전 및 전국대회가 22일부터 23일 이틀간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 140명이 참가해 하니움 실내체육관을 뜨겁게 달궜다.

대회 시작 전 난타공연과 불타는 트롯맨의 가수 이수호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띄웠으며, 개회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가 직접 링으로 올라가 경기 시작을 알렸다.

특히 중국 강소성 산타팀 7명이 참가한 한·중교류전은 IB스포츠 방송에

생중계되어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7경기 중 팽팽한 접전 끝에 슈퍼파이트전 문승현, 챔피언 결정전 정연우, 류민용, 아시아 타이틀전 선현범 선수가 각각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킥복싱이 더욱 대중화되고, 국제무술 교류가 활발해져 더 많은 한·중 교류 경기가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경호/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역 내 공사 관계자 대상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

용인특례시 수 지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공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구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태를 소개하며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규정을 준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구는 계약 관련 불법사항 적발 또는 필수 절차 미이행,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 보고에 따르면 중대 재해의 20%는 불법하도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사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구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잇따르는 전세사기'...서울시, 불법행위차단과 예방에 총력

1/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

최근 전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사기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 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강릉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릉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관망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체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천 9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하여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강릉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HUG 보증사고(21~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5.31)을 진행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엄격한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불법노점 집중단속

노점단속 특별반 4개팀 구성하여 주요 도로 순찰 강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4. 27. ~ 5. 8.)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7일부터 안전건설과 공무원 21명을 노점단속 특별반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관망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호수로, 킨텍스 주변 임시주차장, 역세권 등 주요 도로의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노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자진철

거를 하지 않는 상습노점 ▲통행의 불편 및 혼잡 등을 야기하는 불법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함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필요시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4년 만에 열리는 꽃박람회인 만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관망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38개소 기획수사

위법행위 2개에 각 3백만원 벌금, 과태료 대상 미흡사업장 36개 사업자는 구청 통보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을 맞이해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군·구에 조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고 시 특사경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남/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춘향제** 남원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김태흠지사, “국무총리 등 만나도 현안 논의”

24-27일 국방부·농림부 장관, 국무총리 면담...육사 이전, 석탄발전 특별법 등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도 현안을 풀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7일부터 4박 6일간의 미국 출장길에서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언급한 뒤 “이번 주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도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육사 논산 이전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김 지사는 25일에는 도청을 방문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현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정 장관과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AB 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충남형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 조성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지정 확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는 27일에

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세 추진하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도내 대학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한 끼에 1000원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끼에 1000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시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참여 대학의 부담을 낮췄다.

김 지사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내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최대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서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은 각 부처에서 내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인 만큼 부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시에 지휘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 1일 개통하는 충남형 엠(M)버스와 26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주제로 하는 명사특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아산·천안에서 평택 지체역까지 운행하는 충남형 엠(M)버스

운행사항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소관부서는 개통 전 마지막까지 살펴봐 달라”면서 “민병권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을 초청해 진행하는 명사특강은 탄소중립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앞두고 백의종군길 최종 점검'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임박한 가운데 축제 기간 중 걷기대회가 진행될 백의종군길 최종 점검에 나섰다.

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된 뒤 선조의 출전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해임되고 도원수 권율의 휘하로 백의종군하라고 명령받은 이순신 장군은 한양 의금부를 출발해 아산을 거쳐 경남 합천의 도원수 진까지 640여 km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 길을 ‘백의종군길’이라 명명하고 있다.

시는 장군이 아산에서 체류하던 14박 15일 기간의 이동 경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복원했다. 박경귀 시장은 “장군의 정신을 살리고 장군이 느낀 고뇌의 숨결을 체득하고자 백의종군길 걷기대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관련 부서장과 실무진을 대동하고 3개 구간별 주요 출발지와 쉼터, 주변 정리 상태 등을 세세하게 확인했다.

우선 배방 냇고개에서 현충사에 이르는 ‘구국의 길’(13km) 구간에서는 출발지인 냇고개의 도로변 차량통제 상황과 안전요원 배치, 이동 화장실의 설치현황을 보고 받고 이동 경로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했고, 중간 쉼터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

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에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현충사에서 계마위 쉼터에 이르는 ‘효의 길’(15km) 구간에서는 최근 토사를 거둬 낸 염치읍 곡교리 다목적광장을 둘러보고 “현재 신정호 야외음악당은 규모가 작고 지면이 고르지 못해 큰 공연을 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주변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도로변에 벚꽃을 계속 심어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다목적 광장 밑으로는 생태체험장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곡교천 야외 야구장에서 화장실을 9개 정도 설치하고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텐트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마위 쉼터를 방문해서는 “사유지 평탄 작업을 완료해 주차장이나 행사 추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 매입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포 운선교와 현충사에 이르는 21.4km의 ‘충의 길’ 구간에서는 도로 노면 상태와 교통통제 대책을 점검했으며, 요로원에서는 인근 상가의 공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김원호기자

충주시, 2023년 '책 읽는 충주' 대표도서 선정

충주시립도서관은 2023년 제5회 '책 읽는 충주' 독서운동 올해의 대표도서로 긴긴밤(루리 저), 밝은 밤(최은영 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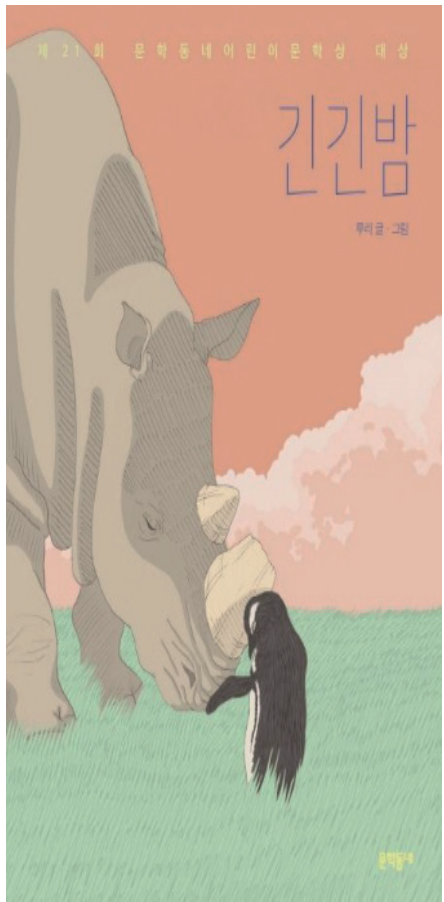
대표 도서 선정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터미널과 도서관, 지역 서점 등에서 실시한 현장투표와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후보 도서(6종)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어린이 부문 대표도서로 선정된 '긴긴밤(루리 저)'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끼리 소년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뱀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작지만 위대한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나들며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동화이다.

일반 부문 대표도서로 선정된 '밝은 밤(최은영 저)'은 백 년의 시간을 감싸안으며 이어지는 사랑과 숨의 기록으로, 증조모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나'에게서 출발해 증조모로 향하며 쓰이는 이야기가 서로 넘나들며,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여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장편소설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책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의 내적 성장을 도와 지역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대표도서 선포와 독서 릴레이,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통해 하나 되는 독서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반도체 첨단 소부장 기업과 간담회 개최

4. 26.(수) 15:00, 시청 7층 투자상담실

원주시는 오는 26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관내 반도체 첨단 소부장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와 기업 관계자들은 원주시 반도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반도체 대기업 유치 추진과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협력 성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간담회가 원주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다지고 국내외 반도체 산



업대열에 동참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에는 삼에스라인, 위온, 이엔아이비, 케이투엔, 플로닉스, 한발, 후성정공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불소수지를 원료로 한 탱크, 탭, 밸브, 튜브 등을 제조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축산물 이력제 특별 점검' 실시

태백시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계란 등 축산물의 사육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점검 방법은 태백시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단속 및 행정 처분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전산 신고 여부, 거래명세서,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태백시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이익의 보호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화려하고 역동적인 강릉의 야경을 선사합니다

오는 4월 28일부터 월화교 분수조명 정식 가동

강릉시는 월화교 일원에 다채로운 분수조명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월화교 분수조명은 총연장 160m(교량 상/하류부 각 80m 구간)에 116개의 분수노즐과 빔프로젝터 6대, 무빙라이트 14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27일까지 시험 가동을 거쳐 28일부터 정식으로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설 점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과 일요일은 오후 2시, 7시 30분,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2시, 7시 30분, 8시 30분에 매회 20분간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수쇼가 진행된다.

해가 긴 하절기(7월~9월)에는 기존 시간보다 30분 늦게 가동되며, 동절기(12월~3월)에는 분수를 제외한 조명시설과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월화교 분수조명을 이용한 다채로운 분수쇼와 강릉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최근 산골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알록달록 꽃무늬'동해 한섬해변 테트라포트 눈길

동해시가 한섬감성바닷길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한섬해변 내 테트라포트 구간에 바닷가 꽃밭을 연상시키는 예술작품을 마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트라포트를 흰색으로 도색 후 알록달록 화려한 꽃무늬로 채색된 아트꽃밭은 1월부터 12월에 희망의 13월이 추가되어 총 13개의 꽃과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포도존, 조형물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속속 확충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심 속 핫플레이스 한섬감성바닷길에 아트꽃밭이 조성되면서 인근을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가 추가됐다.

시는 지난 2018년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토목 및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한 한섬감성바닷길 1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산책로에 재미와 감성이 담긴 조형물을 설치하는 2단계 정비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섬감성바닷길에는 100m 코스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갖춰 조형물과 음악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리드미컬 게이트와 작은 터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만든 빛터널 등은 이미 SNS와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퍼져 한섬감성바닷길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고불개 해변을 알리고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방치된 우물을 복원하여 재밌는 스토리를 부여한 어린왕자 포토존은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든든한 지원'

도, 13일 3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이어 18개 대학·기업 등과도 협약 체결

충남도 내 18개 대학·기업·기관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24일 예산군청에서 전형식 도정무부지사과 최재구 군수를 비롯해 18개 대학·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합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도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행정력을 집중, 지난 13일 도청 경제기획관실에서 예산군, 충남농업기술원, 충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날 대학·기업·기관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시설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천연물 소재 콘셉트로 약초생산 전용 첨단농장(생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연구·시험생산)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231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클러스터(165만㎡) 내에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1만 2697㎡(약 3840평) 규모로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대전시-SK온 4700억 규모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미래 주력산업 차세대배터리 선두주자... 대기업 유치 신호탄



대전시는 24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인 'SK온'과 4,700억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SK온과의 업무협약은 일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전시의 본격적인 기업 유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마중물 삼아 앞으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서구평촌 산업단지 등에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예고하고 있다.

SK온은 하이니켈 개발 성공 등 우수한 연구개발(R&D) 능력과 글로벌 양산체계 구축을 토대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SK온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폼팩터(form factor) 개발이나 전고체(solid-state battery) 등 차세대배터리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온은 2025년까지 총 4,700억 원을 투입해 대전 유성구 원촌동 일원에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및 글로벌 품질관리센터(G-VL, Global

Validation Center)를 신설한다.

신·중층은 연구원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총 7만 3,400㎡(2.2만 평) 규모로 진행된다. 연구시설 확충으로 4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SK온의 원활한 투자진행을 도와 대전시 산업발전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지동섭 SK온 사장은 "이번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으로 SK온의 기술개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성장의 열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SK온의 투자 결정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대전시를 선택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라며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될 대전의 여러 산업단지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1분기 수출 75억 달러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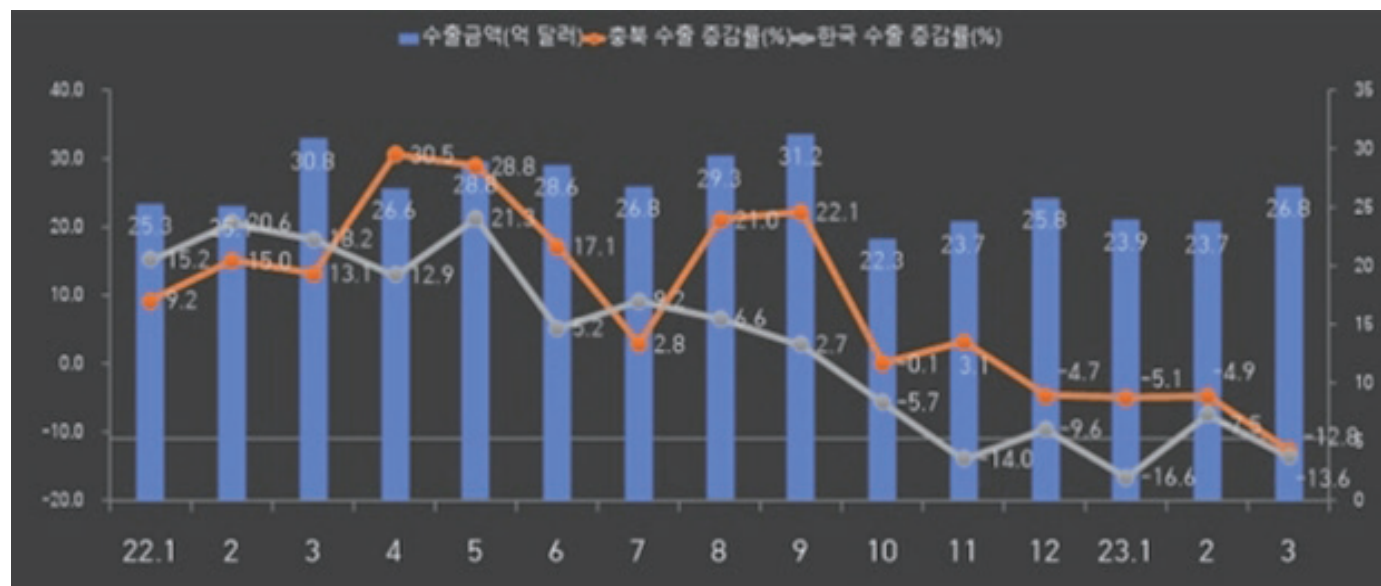
전년 대비 수출 8% 감소, 이차전지 중심의 수출 견인

충청북도의 1분기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어려운 수출 환경속에서 전년 대비 8% 감소한 75억 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수출이 12.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시장의 수요감소 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6.9% 감소하고, 그동안 충북 수출을 지탱해 온 평판필름, SSD, 필름류 등의 하위수출품목과 코로나 완화에 따른 진단키트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시장의 수요감소 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6.9% 감소하고, 그동안 충북 수출을 지탱해 온 평판필름, SSD, 필름류 등의 하위수출품목과 코로나 완화에 따른 진단키트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16.3%, 190%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태양광 모듈 수출이 155% 증



가하면서 반도체 수출 감소분을 상쇄시켜 충북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수출 비중도 35.3%로 두 자리 이상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충북 수출의 42%를 차지하던 중화권 수출이 37.2%로 감소한 반면, 미국과 유럽 시장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10%p 늘어난 41%로 증가하면서 수출 감소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2분기 수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예상했다. 반도체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 불투명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4월 18일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공급망 점검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수출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면서 "금년도에야 심차게 시작한 5,000개 수출전략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무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삼성전자, '기후변화주간' 맞아 글로벌 소등 캠페인

삼성전자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운영하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업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전자의 국내 10개 사업장과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해외 44개 법인이 참여, 21~22일 밤 8시에 10분간 소등했다. 또한,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삼성메디슨 등 자회사도 동참했다.

삼성전자 국내의 사업장의 10분간 소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량은 약 3,410kWh로 온실가스로 환산할 경우 1,786KgCO₂-eq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나무 약 77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 수치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소등 전후

년 제정됐고,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여 전국소등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1~27

일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지난해 9월 '신환경경영전략'을 선언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대구시 성서산단 9천억 원(27층 4개동) 규모 비수도권 최대 지식산업센터 유치, 도심 노후산단 랜드마크 조성

창의적 민간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노후산단 첨단화·재구조화 견인

대구광역시 성서산단에 일하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창의적 신산업공간을 제공하는 9,000억 원(27층 4개동) 규모의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미래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심 노후산단의 첨단화·재구조화를 가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치는 성서산단(3차) 내 최첨단 1공장으로 부지로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원스톱비즈니스 가능한 랜드마크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는 구상 아래, 사업비 9천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28만㎡, 지하 2층, 지상 27층 건물 4개 동을 동시에 건축하여, 제조업은 물론 업무시설과 문화, 편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지원시설에 창의성을 가미한 맞춤형 특화 설계로 700여 개 업체를 입주시켜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시킨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시작해 2024년 말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가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다양하고 수많은 업종 간 상호 융복합 작용으로 미래 혁신산업을 이끌어가는 클러스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산업단지에 도시와 어울리는 랜드마크 존이 형성돼 근무시간 외 공동화되는 산업단지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투자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간투자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관리하여 후속 사업을 유치해 노후 산단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청년 친화적인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다시 한번 지역경제를 견인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투자 기업은 (주)신아(INC)로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에 선도적으로 지



식산업센터를 보급해 민간의 자발적 후속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투자기업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의 청년일자리 제공과 신산업 집적화를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대구지역도 지식산업

센터가 공급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공급량 대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간, 대구의 노후산단은 도심에 위치해 직주근접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와 청년근로자의 기피현상, 높은 부지가격으로 인한 창업 공간제공 부족 등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신산업공간 재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노후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는 보다 활성화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용지 개발 공모를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부담으로 언급되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노후산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라며,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를 활성화하여 미래산업을 대비함은 물론 산업단지를 도시와 조화될 수 있는 신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주영 사회복지사 시장상 수상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주영 사회복지사가 지난 21일 사천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사천시장애인복지증진 대회에서 사천시 시장상을 수상했다.

사천시가 주관하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이주영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사천시 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주영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맞춤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사회·심리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밀반찬 및 김장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식생활개선과 지역공동체조직 조직 및 활동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관계망 형성을 유도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이태호 운동재활사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이주영 사회복지사가 사천시 시장상을 수상하



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종합복지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주영 사회복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는 순간 사회복지사로서 삶이 되돌아보게 됐으며, 사회복지사로서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며 "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큰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들

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는 새로운 각오로 소외된 지역장애인들과 함께 주고받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함께 걸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준/기자

금천구,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표창패 수여

금천구는 4월 24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금천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겨울철에 3개월간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하는 집중모집 캠페인이다.

금천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0억 8천만 원 상당의 성금·성품을 모집했다.

기부를 받은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구청장 감사패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패 선정 기준은 '지속 기부자', '고액 기부자', '미담 사례자'이다.

먼저 구청장 감사패 대상자로는 △(주)가산웰스홀딩스 △ 금천불교사암연합회 △ 금천중앙새마을금고 △(주)금천환경 △(주)미슈 △(주)바리코리아 △(주)엘리트렌탈 △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 진명자 △(주)티케이



케이 △ 한일크린(주) 총 10개의 개인, 기업 및 단체를 선정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패 대상에는 △ 가리봉새마을금고 △ 김가네 가산갑을그레이트점 △ 대덕정공 △ 금천신용협동조합 △ 광덕어퍼럴 △ 구립남서울힐스테이트 어린이집 △ 구립하늘빛어린이집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금천구지회 시흥3분회 △ 시흥4동 통장협의회 △(주)삼정환경

서비스 총 10개의 기업 및 단체를 선정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금천구의 저소득층에게 기부자들의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함평군, '2023년 함평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

지역개발 부문 김형중·이선행 씨 등 2명

전남 함평군이 제25회 군민의 날을 기념해 '2023년 함평 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함평군은 "올해 함평 군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개발 부문에 김형중(85세) 씨와 이선행(77세) 씨 등 2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민의 상'은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해 표창하는 상이다.

앞서 군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김형중 씨는 제중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함평군민의 상 수상자(김형중)

해 왔으며, 월야실내체육관 및 시니어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국비 확보

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선 공로가 인정됐다.

이선행 씨 또한 매년 주민을 위해 무료로 '국화 뜯 콘서트' 공연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와 사랑의 쉼터를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내달 4일 열리는 제2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함평의 명예를 드높인 두 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서울 중구, 건축전문가 재능기부 받아 취약계층 주거 환경 바꿔준다

도배·장판 시공, 단열공사, 냉난방기 설치, 방범창 설치 등 낡은 주거 환경개선 기대

서울 중구가 건축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낡은 주택은 폭우,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단열 성능도 저하돼 난방비, 전기요금도 인상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등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 관련 전문건설업체 및 대형공사장의 건축전문가(사공) 재능기부와 연계할 방침이다.

대상자와 업체가 일대일로 연결되면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나가 거주지를 살펴본 후 지원자와 협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배, 장판, 타일, 변기 등 교체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창호, 단열, 냉난방기 설치 △외부 침입에서 안전한 방범창, 담장 설치 및 방치위험 시설물 안전 조치 등 세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공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이번 달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인우종합건설(주)이 회현동



홍0기 어르신 덕의 도배와 장판 시공을 맡아 진행했다.

어르신은 한결 쾌적해진 집을 둘러본 후 "반지하라 곰팡이가 퍼서 쿨퀴하던 집을 이렇게 살기 좋게 바꿔 주어서 대만족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철 대표는 "어르신께서 공사 결과 흡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부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 가지겠

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기존에도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조건이 안 맞아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수리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살필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더 많은 업체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원/기자

나주시, '공무원 교육 동기 인연' 고향사랑기부제로 이어져

나주시 감사실-영광군 군서면 직원들, 상호 교차 기부 훈훈



고향사랑기부제가 향우, 타 지역 국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간 교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 감사실과 영광군 군서면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차 기부는 나주시 감사실장과 영광군 군서면장직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 교육 동기로서 인연이 깊어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나주시청사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시·군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시·군 직원들은 기부금과 함께 양 지역 특산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감사실 직원들은 공방을 점심으로 대접하고 군서면 직원들은 맛있는 송편을 선물하며 우애를 다졌다.

강영구 나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우애와 협력을 다져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납부와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납부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안/기자

제25회 2023 함평 나제 대축제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뚝.뚝.뚝 나비야 일어나! 봄이야!

4. 28. (금)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축제관개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C 한국도로공사 KORAIL

구미시 가족센터, '온 가족 놀이축제' 열다!

온 가족 음악회·마술쇼, 에어바운스·전통놀이 등 풍성한 어울림 축제

구미시는 지난 22일 10시부터 17시까지 구미시 가족센터 주관으로 '온 가족 놀이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어바운스와 풍선아트 놀이, 가족 가드닝 만들기, 눈과귀를 즐겁게 하는 가족 단위 음악회, 마술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였으며, 다둥이 가족 등 부모와 아이 600여 명이 참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일상의 활기를 되찾아 준 축제의 장이 됐다.

황은채 가족교육과장은 "매년 진행되는 온 가족 놀이축제를 기다렸을

가족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모든 가족이 행복하면 구미가 건강해진다는 목표로 앞으로도 온 가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가족센터(센터장 도근희)는 모든 가족들이 찾는 소통 공간으로써 다양한 교육·상담은 물론 위기가족 긴급지원,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함안군, 제1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 개최

함안군은 제1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를 오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함안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보리·작약밭에 만끽하는 봄날의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는 낙동강변을 따라 42만㎡의 푸른 청보리와 2만4000㎡의 분홍 작약꽃이 따뜻한 봄날을 느낄 수 있도록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청보리밭 사잇길 걷기, 작약꽃밭 관람, 작약차 나누기, 천연염색 체험, 승마체험, 초정가수공연, 농·특산물판매,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 중에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초록색 보리의 출렁임과 분홍색

의 화사한 작약꽃밭에서 봄날을 마음껏 만끽하고, 특히 강나루생태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함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선보이며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계행사로 제3회 아라가야목조각페스티벌이 열린다. 칠서면 강나루생태공원 내에서 목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캐리커처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아라가야역사유적지구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함안으로 오셔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함께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덕수/기자

'화려한 태권도 속으로' 서울시, 태권도 공연으로 관광객 유치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태권도 특별공연 콘서트를 시작으로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태권도 공연과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서울시는 태권도 공연을 서울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태권도 상설 공연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오락적 요소와 태권도를 결합한 공연을 통해 외국인들의 흥미를 유발할 예정이다.

이번 태권도 특별공연 콘서트는 체험형 축제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해 '태권도와 한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5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박애리와 팝핀 현준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기원을 비롯한 K-타이거즈, 리틀 K-타이거즈 및 비가비 등 다양한 태권도 공연팀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기원과 서지우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와의 합동 공연, K팝과 태권도 동작을 결합한 공연, 태권 타악 퍼포먼스 등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더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리트 맨 파이터 우승팀인 '저스트플로'와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서출구'와 싱어송라이터 '주니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남산골한옥마을 상설 공연도 올해부터 재개한다. 5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7, 8월은 제

외) 매주 금, 토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상설 공연은 태권도의 강인하고 박력 있는 시범과 태권 타악과의 만남(금요일),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 온 국기원 시범단의 화려하고 통쾌한 격파 시범과 절도 있는 품새 시범(토요일)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방문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매주 토요일 태권도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도복 입기, 기념품,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공연이 끝난 후 30분 동안 진행되며, 태권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막기, 차기, 지르기 등 태권도 기본 동작과 태권도 품새, 태권도 기술의 핵심인 격파까지 체험할 수 있다.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유선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3 서울시 태권도 특별 공연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4월 25일부터 좌석을 예약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 관람은 가능하다. 김영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이자 국기이며, 태권도 공연은 예술성과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모두 인정받는 한류 콘텐츠이기도 하다"라며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문화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4월 경기도 문화의 날, 경기문화재단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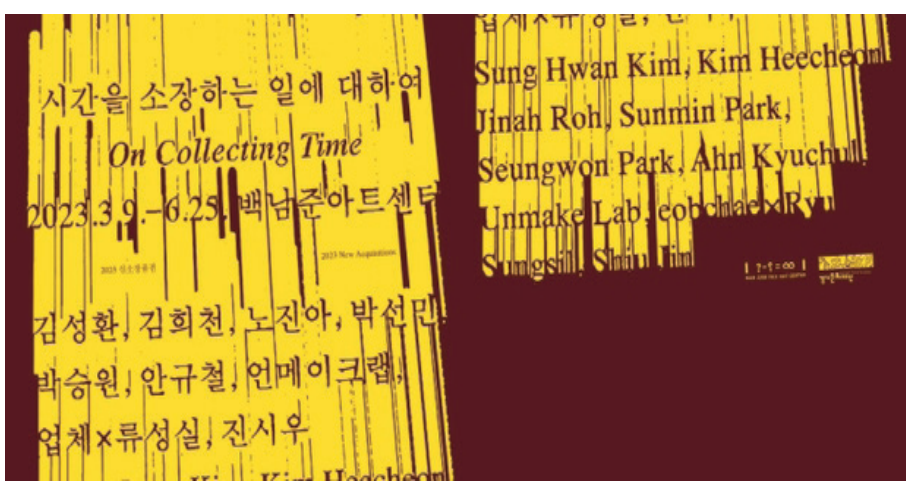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4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문화의 날은 26일, 문화주간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문화재단 및 소속 문화기관 행사 소식

경기도박물관은 4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오후 매주 화요일 2시~4시에 경기도박물관 대강당에서 '2023년 박물관 대학'을 개강한다. '박물관 대학'은 역사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성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번 강의는 '인류 역사를 바꾼 전쟁'을 주제로 진행된다.

4월 7일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 방법은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유선 전화 접수 등 다양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대상 발굴 체험 프로그램 '선사의 발명품'이 있으며 3월 25일부터 6월 3일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접수는 각 교육일로부터 2주 전에 시작되며 접수방법은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은 2024년 2월 12일까지 소장품전 '잘 지나가요' 전시를 선보인다. 경기도미술관에서 15년간 수집한 소장품 중 '위로'와 관련된 작품을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현대미술



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기간에 수집한 작품을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아홉 명(팀)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구성했다. 전시는 6월 2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백남준 작업실에 놓인 재료와 소품을 관찰해보는 '백남준의 작업실 탐방'이 있다. 6월 23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초·중·고·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미술 감상을 새롭게 경험해볼 수 있는 '보다, 천천히'는 11월까지 문화의 주간인 마지막 주 수~금요일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실학박물관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간서치(看書痴) 실학자 되기》를 진행한다. '간서치(看書痴)'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별명이다. 독서광이었던 실학자 이덕무의 독서 습관을 본받아 실천해보자는 취지



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1월까지 마지막 주 수요일 11시부터 선착순 20명(9:30부터)의 구서체(九書齋: 이덕무의 서재 이름) 책갈피를 무료로 나눠준다. 실학박물관 주말 상설프로그램 '실~하게 놀자~!'는 실학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이다. 가족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학박물관 누리집(silhak.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선사 캠프를 진행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지지씨멤버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체험 운영일자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아이스맨과 아기 디마의 비밀, 떠나요, 선사예술 속으로, 비너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전시 '업사이클 포레스트 Upcycled Forest'가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알록달록한 숲으로 만

든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플라스틱의 유희성과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전시는 10월 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외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상상캠퍼스에서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각 기관 및 지지씨멤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내 행사 소식

경기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에서 다양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 사업과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씨에 소개된 주요 소식으로, 하남문화재단이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4월 26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선보이는 'M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발레' 공연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문화재단 북사골문화센터에서 그림자극 '늪은 개' 공연이 있다.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공연 예정이며 4월 28일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소개된 내용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문화의 날 주간 중에 즐길 수 있는 주요 전시로는 양평군립미술관 '양평-몽골 현대미술전'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이야기유랑선'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및 지지씨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KIA 타이거즈 경기 시구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2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다.

이번 시구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와 자동차극장, 천지길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군수뿐 아니라 함평군청 공무원과 유소년 야구단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또,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리플렛,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축제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이상의 군수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아타이거즈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아울러, 올해 나비대축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영진/기자

울진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울진군은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24일 폐회식을 갖고 4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폐회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체전 수상자 발표, 다음 도민체전 개최지인 구미시로 대회기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북도민체전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개최식은 무대 앞에 군민석 1,200석을 마련해 선수단과 내빈들이 군민들의 응원을 직접 느끼면서 입장할 수 있었고, 군민들은 바로 앞에서 선수단 입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인기가수 축하공연, 불꽃 드론 쇼와 점화, 드론쇼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특수연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울진의 미래상을 표현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개최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불꽃 드론으로 성화 점화를 한 후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연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경북 최초 AI 스포츠 중계방식을 도입해 경기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민체육대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신기록도 쏟아졌다. 신기록은 육상 3개, 수영 9개, 사격 2개 등 총 3개 종목 14개이다.

2관왕 이상의 다관왕은 6개 종목에서 62명이 차지했다. 4관왕의 경우 육상 3개 수영 3개 등 총 2개 종목 6명이다. 개최지인 울진군은 12년만에 군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7월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에 그동안 함께 했던 22개 시군의 뜻을 모아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성취상은 시부 안동

시, 군부 성주군, 모범선수단상은 시부 문경시, 군부 올림군, 입장상은 시부 영천시, 군부 봉화군이 각각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상은 시부 경산시 선수단 수영 종목의 송명지 선수, 군부 칠곡군 선수단 육상 종목의 김홍유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종합시상에서 시부 1위는 포항시, 2위와 3위는 구미시와 경산시이며 군부 1위는 개최지인 울진군이 2위와 3위는 예천군과 칠곡군이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오는 10월 13일 목포에서 개

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 경북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도민체육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해 가슴 벅차다"며 "태풍 미락과 산불을 이겨내고 도민체전의 성공개회를 위해 보내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국가 수호 산업 중심의 지방강소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써준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